여수시, 박람회장 앞 교통섬 새단장

교통요충지 · 관광 구심점인 회전교차로 단장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세계 속 여수' 표현

여수시가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문 앞 회전교차로의 삭막한 교통섬을 조경수목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화사한 기운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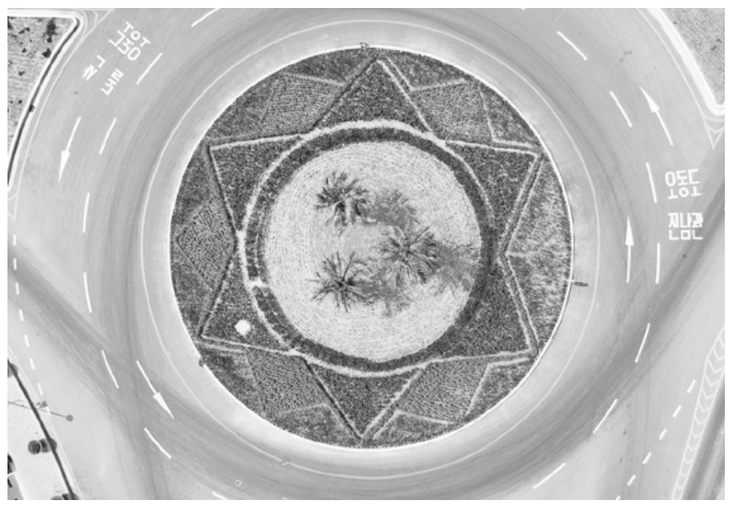
박람회장 앞 로터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오동도나 여수밤바다를 찾는 관광객 등이 반드시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이며 관광의 구심점이다.

시는 원형의 교통섬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계승 의지와 비전을 담아 '5대양 6대주로 뻗어 나가는 세계 속의 여수'를 표현했다.

교통섬 중심에 삼여통합을 상징하는 3그루의 코크스야자 나무를 심고, 주변에는 홍가시, 가장자리는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5조각의 황금사철과 6조각의 꽃치자 나무를 채워 식재했다.

코크스야자 나무는 여수 지역에서 월동 관리가 필요 없는 사계절 푸른 아열대수종으로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3여를 상징하는 야자나무를 둘러쌓고 있는 홍가시나무는 새순이 붉어 통합여수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불꽃을 상징적으로 구현했다.

정종곤 산림과장은 "여수시의 기상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상징물을 구상했다"고 밝히며, "잘 관리해서 따뜻한 남쪽도시의 이국적인 풍광을 통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박람회장 정문 앞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입장객을 위해 넓은 광장과 캐노피 시설이 있었으나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해 로터리를 조성하면서 잔디로 마무리를 해 나무 한그루 없는 원형의 교통섬으로 있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듣는다

다음달 22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역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등 연계된 출산가정 지원 대책 및 보완점 △일 · 가정 양립 환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 △출산가정 자녀수별 지원 혜택 △기타 인구문제 대책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다.

참여대상은 광양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공모제안,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는 참신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금상

(1명) 50만 원, 은상(2명) 30만 원, 동상(3명) 10만 원 등 6명에게 총 12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시장표창이 수여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인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략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팀(☎061-797-1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곡성군, 곡성토란탕 가정간편식 개발을 위해 발돋움

곡성군은 최근 토란의 대표음식인 토란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화 토란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발굴한 고조리서 재현식, 전라도 표준식, 간편?현대식 등 3가지 레시피 개발 과정과 곡성 토란탕만의 브랜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란탕 3가지를 직접 선보여 시식 및 관능평가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가정간편식 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간편하지만 건강한 집밥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건강식 곡성 토란탕을 데우기만 하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으로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곡성 토란탕 HMR화를 위한 레시피 표준화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중간보고회 관능평가 결과에 따라, 가장 선호도 있는 1가지 레시피를 보완 후 표준화하여 향후 토란탕을 가정간편식 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토란탕 HMR화를 위한 레시피 표준화를 위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며 "관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레시피를 보완하여 향후 가정간편식 곡성 토란탕을 개발할 것이며, 토란탕이 원물 소비가 큰 만큼 대중화된다면 토란 재배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청년셰어하우스 운영자 모집

순천 시에서 운영중인 셰어하우스

순천시는 청년 인구유입으로 활기찬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저전동 빈집을 활용한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셰어하우스 활용 아이템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간라운딩과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2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동을 포함한 빈집건물 8동으로 이번 총괄운영자를 선정 후 청년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입주자들은 운영자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 입주하게 된다.

셰어하우스는 운영자가 제안한 아이템을 활용해 공간조성을 하게 된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 워크숍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정착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양효정 과장은 "운영자는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우선해 발굴할 예정이다"며 저전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광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영광군은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코로나19 극복 관련 생계안정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체크(클린)카드로 지급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담양군, 청년농업인 '문화쉼터' 조성

담양군이 청년농업인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쉼터조성사업의 결실로 '청년농업인 문화쉼터'가 지난 18일 봉산면에 첫 문을 열었다.

담양군이 올해 첫 시행한 청년농업인 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워라벨을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생활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문화시설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기대된다.

청년농업인 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여가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담양=박종영 기자